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111>

JCCT 2023-5-13

## 간호대학생의 타인수용, 친구관계 및 공감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Acceptance of Others, Friendship, and Empathy on Communication Skills among the Nursing Students

김희경\*, 오재우\*\*, 김양신\*\*\*

Hee Kyung Kim\*, Jae Woo Oh\*\*, Yang Sin Kim\*\*\*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22.6.01~6.30.까지이며, 대전·충남지역 소재 3개의 대학 간호학과 3,4학년 재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WIN 25.0을 이용하였으며, 서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수용( $r=.32, p<.001$ ), 친구관계의 긍정적 감정( $r=.44, p<.001$ ) 및 공감능력( $r=.38, p<.001$ )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들 변수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총 32.0%를 설명하였다. **논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간호, 수용, 친구관계, 공감능력, 의사소통

**Abstract Purpose:** This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for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on-face-to-face culture becomes commonplace due to the COVID-19.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1-30, 2022, targeting total 160 nursing students(3rd/4th year) of three universities in Daejeon and Chungnam. Using the IBM SPSS/WIN 25.0,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 the results, the communication skill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acceptance of others ( $r=.32, p<.001$ ), positive emotions in friendship ( $r=.44, p<.001$ ), and empathy ( $r=.38, p<.001$ ),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total 32.0% of communication skills. **Conclusion:** Based on such results,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xtracurricular programs and also to establish the application measures for maintaining positive friendships and enhancing empathy.

**Key words :** Acceptance, Communication, Empathy, Friendship, Nursing

\*정희원,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정희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공동저자)  
접수일: 2023년 3월 13일, 수정완료일: 2023년 4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5일

Received: March 13, 2023 / Revised: April 15, 2023  
Accepted: April 25, 2023  
\*\*\*Corresponding Author: oiw77@konyang.ac.kr  
Dept. of Nursing, Konyang Univ, Korea

## I.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시기와는 달리 대학생활에 있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과 양적·질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친구관계 [1], 전공 교수와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등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요구에 당면해 있다. 이 시기에 독립적으로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면 개인의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우울, 불안, 인터넷중독 등의 심리적 문제로 이어진다[2]. 간호학과는 전문직 특성 상 타과에 비해 많은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간호대학생들에게 이러한 요소가 과중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3]. 또한, 졸업 후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형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상대평가인 학점부여 체계에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경쟁적인 친구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시기에 달성해야 할 인간관계의 친밀감 형성이 방해받고 있다 [4]. 특히, 신입생들은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같은 반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했던 이전과는 달리 친구, 선배 및 교수들과의 교류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대인관계 발달이 더욱 지연되고 있다[5].

타인수용의 수준이 높은 경우 조화로운 인간관계 형성 및 통찰력이 높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타인을 잘 수용하지 못하면 타인에 대한 분노나 억압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대인관계를 회피하여 고립될 수 있다[6,7].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질을 잘 훈련받지 못한다면 학생으로서의 대인관계도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대상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영적인 측면의 전인간호를 제공해야 함에 있어[8]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타인수용은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라 볼 수 있다.

공감능력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되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확인하고 환자가 의미하는 것을 민감하게 파악[9]하는 것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생활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능력은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데, 간호사는 환자의 요구와 감정 및 상황을 이

해하며, 대상자와의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고 질적 간호를 유지하는 중심에[10,11] 있기 때문이다. 공감을 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스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감정 이상의 교류를 가능케 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의사소통 능력은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조직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얼마나 활용하느냐를 말한다[12].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술로 간호 대상자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간호의 목적 달성과 전문직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13,14]. 팀을 이루어 인간을 대상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직의 특성 상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은 필수적이지만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달 속에 자라온 요즘의 간호대학생들은 대면 소통보다는 SNS 등 비대면 소통에 익숙하며,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이러한 비대면 소통 문화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되는 타인수용, 친구관계 및 공감능력에 관한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인수용, 친구관계 및 공감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타인수용, 친구관계 및 공감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대전·충남지역 소재 3개의 D, K, K대학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의

사를 밝힌 166명이 그 대상이다. 다양한 파트의 임상실습 경험은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스스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강의를 하지 않는 학년의 학생들과 지도학생을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통하여 예측 요인의 수 5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 수가 138명이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한 166명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6명을 제외한 160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타인수용

본 연구에서는 타인수용 측정을 위해 Chamberlain과 Haaga [15]의 자기수용검사(Revise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 USAQ-R)를 Cho [16]가 타인수용에 적합하도록 수정·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수용이 높음을 나타내며 전체점수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이다. Cho [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77이었다.

#### 2) 감염예방환경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Mendelson과 About [17]의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에서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8문항과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 14문항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감정 문항은 0점에서 5점까지의 6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에서의 긍정적 감정이 높음을 나타내며, 전체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40점이다. 부정적 감정 문항은 0점에서 8점까지의 9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에서의 부정적 감정이 높음을 나타내며, 전체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12점이다. Rhee와 Koh [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95,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 .9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Cronbach's  $\alpha$ 는 .97이었고,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 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 3)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 [19]가 개발한 대인관계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 IRI)를 전병성[20]이 번안 및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하위영역 및 성별 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의 범위는 .70에서 .78이었다[19]. 전병성 [20]이 재구성한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4) 의사소통능력

Rubin 등[21]의 의사소통 능력 척도를 허경호[22]가 수정·보완한 포괄적 대인커뮤니케이션 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 GICC)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 정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허경호[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K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IRB (No. KNU\_IRB\_2022\_035) 승인 이후인 2022년 6월 0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대전·충남지역 소재 3개의 D, K, K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의 허락을 얻은 뒤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설명 외에도 사생활 보호, 비밀보장 및 자료의 익명성과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뒤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때 연구대상자가 스스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가 강의를 하지 않는 학년의

대상자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함께 제공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program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인들의 차이 비교는 t-test와 ANOVA로,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33명(83.1%), 연령은 20~29세가 149명(93.1%), 학년은 4학년이 87명(54.4%)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4명(71.3%), 거주형태는 부모와 함께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92명(57.5%)이었으며, 전공 선택 동기는 취업의 용이성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1명(38.1%),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85명(53.1%)으로 가장 높았다. 친한 친구는 4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4명(65.0%), 의사소통 교육 이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7명(7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SD
Gender	Male	27 (16.9)	
	Female	133 (83.1)	
Age (year)	20~29	149 (93.1)	23.59 ±5.80
	30~39	4 (2.5)	
	40≤	7 (4.4)	
Grade	3	73 (45.6)	
	4	87 (54.4)	
Religion	Yes	46 (28.7)	
	No	114 (71.3)	
Form of residence	With parents	92 (57.5)	
	Dormitory and self-catering	59 (36.9)	
	Etc	9 (5.6)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Suitably	43 (26.9)	
	According to grades	12 (7.5)	
	Ease of employment	61 (38.1)	
	Parents or other's advice	37 (23.1)	
	Etc	7 (4.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85 (53.1)	
	Commonly	67 (41.9)	
	Dissatisfaction	8 (5.0)	
number of close friends	≤1	4 (2.5)	
	2-3	52 (32.5)	
	4≤	104 (65.0)	
Communication training experience	Yes	127 (79.4)	
	No	33 (20.6)	

2. 간호대학생의 타인수용, 친구관계와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타인수용, 친구관계와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다. 타인수용의 경우 75점 만점에 52.15±7.79점, 친구관계에 있어 긍정적 감정은 40점 만점에 33.62±7.06점으로 보통 이상이었으며, 친구관계에 있어 부정적 감정은 112점 만점에 11.28±14.11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3.64±0.56점, 하위 영역인 인지적 공감능력은 3.55±0.58점, 정서적 공감능력은 3.73±0.64점으로 보통 이상이었고,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3.83±0.56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타인수용, 친구관계,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정도

Table 2. Degree of Acceptance of Others, Friendship and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N=160)

Variable		Mean±SD	Range
Acceptance of others,		52.15±7.79	15-75
Friendship	Positive emotions	33.62±7.06	0-40
	Negative emotions	11.28±4.11	0-112
Empathy		3.64±0.56	1-5
	cognitive empathy	3.55±0.58	
	emotional empathy	3.73±0.64	
Communication skills		3.83±0.56	1-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공 만족도( $F=7.71, p<.001$ )와 친한 친구의 수( $F=4.12, p=.018$ ), 의사소통 교육 이수 경험( $t=3.96, p=.048$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인 Scheffe test에서 3개의 변수 모두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간호대학생의 타인수용, 친구관계와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타인수용, 친구관계와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수용( $r=.32, p<.001$ ), 친구관계의 긍정적 감정( $r=.44, p<.001$ ), 부정적 감정( $r=-.25, p=.001$ ), 공감능력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정도  
 Table 3.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ommunication skills	
			Mean±SD	t or F (p)
Gender	Male	27 (16.9)	3.80±0.56	0.16 (.687)
	Female	133 (83.1)	3.84±0.56	
Age (year)	20~29	149 (93.1)	3.85±0.56	1.41 (.247)
	30~39	4 (2.5)	3.57±0.43	
	40≤	7 (4.4)	3.56±0.40	
Grade	3	73 (45.6)	3.78±0.60	1.73 (.191)
	4	87 (54.4)	3.89±0.51	
Religion	Yes	46 (28.7)	3.96±0.49	3.15 (.078)
	No	114 (71.3)	3.79±0.58	
Form of residence	With parents	92 (57.5)	3.86±0.53	2.99 (.053)
	Dormitory	59 (36.9)	3.86±0.61	

	and self-catering			
	Etc	9 (5.6)	3.40±0.32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Suitably	43 (26.9)	4.04±0.52	2.39 (.053)
	According to grades	12 (7.5)	3.85±0.57	
	Ease of employment	61 (38.1)	3.75±0.52	
	Parents or other's advice	37 (23.1)	3.72±0.58	
	Etc	7 (4.4)	3.89±0.6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85 (53.1)	3.99±0.51	7.71 (.001)
	Commonly	67 (41.9)	3.64±0.53	
	Dissatisfaction	8 (5.0)	3.84±0.79	
number of close friends	≤1	4 (2.5)	3.92±0.45	4.12 (.018)
	2-3	52 (32.5)	3.66±0.42	
	4≤	104 (65.0)	3.92±0.60	
Communication training experience	Yes	127 (79.4)	3.88±0.55	3.96 (.048)
	No	33 (20.6)	3.66±0.56	

( $r=.38, p<.001$ )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4. 대상자의 타인수용, 친구관계, 공감능력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cceptance of Others, Friendship,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N=160)

Variables	Acceptance of others, r (p)	Friendship		Empathy r (p)	Communication skills r (p)
		Positive emotions r (p)	Negative emotions r (p)		
Acceptance of others,	1				
Friendship (Positive emotions)	.35 (<.001)	1			
Friendship (Negative emotions)	-.39 (<.001)	-.52 (<.001)	1		
Empathy	.21 (.009)	.22 (.006)	-.16 (.039)	1	
Communication skills	.32 (<.001)	.44 (<.001)	-.25 (.001)	.38 (<.001)	1

표 5. 대상자의 타인수용, 친구관계 및 공감능력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N=160)

Variables	B	SE	$\beta$	R <sup>2</sup>	Adj.R <sup>2</sup>	t	p
Constant	1.65	.34				4.86	p<.001
Friendship (Positive emotions)	0.03	.01	.32	.20	.20	4.47	p<.001
Empathy	0.24	.07	.24	.29	.28	3.43	.001
Major Satisfaction (Commonly)*	-0.19	.08	-.17	.32	.30	-2.41	.017
Acceptance of others,	0.01	.01	.15	.34	.32	2.08	.040

\* Dummy variables=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0).

#### 5.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회귀분석 검정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가 0.85에서 .90로 0.1이상을 나타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1에서 1.18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Durbin-Watson값이 2.06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에 대한 독립성도 충족되었고, 등분산성과 정규성도 확인되어 회귀분석의 모든 가정을 충족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전공 만족도와 친한 친구의 수, 의사소통 교육 이수 경험은 의사소통 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더미처리하여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구관계의 긍정적 감정( $\beta=.32$ ,  $p<.001$ ), 공감능력( $\beta=.24$ ,  $p=.001$ ), 보통 정도의 전공 만족도( $\beta=-.17$ ,  $p=.017$ ), 타인수용( $\beta=.15$ ,  $p=.040$ ),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32.0%로 나타났다(Table 5).

#### IV.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호대학생의 타인수용, 친구관계,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친구관계와 전공 만족도 및 타인수용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

인임을 확인하였다.

타인수용의 경우 75점 만점에 평균평점 52.15±7.79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인수용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부재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타인수용이란 한 개인이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 것[23]으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의 근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친구관계에 있어 긍정적 감정은 40점 만점에 평균평점 33.62±7.06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친구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나 친구관계란 두 사람이 형성하는 비공식적이고 친밀한 관계로서, 자발적 관계인 동시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물리적 또는 감정적 교류를 맺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24]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 중에서 친구관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0%에 달할 만큼 친구관계는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한다[1].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협업을 필요로하는 간호직의 특성 상 조별로 시행되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내에서의 팀 프로젝트 과제 등을 시행하면서 친구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64±0.56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명옥(2016) [25]의 3.69점과 Jo [[26]의 연구 결과인 3.73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이 주 대상으로 환자를 직접 접하게 되는 임상실습을 통하여 공감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3.83±0.56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Jo [26]의 연구 결과인 3.76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은 전문직 자아개념 및 간호의 전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27] 교과 내·외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수용( $r=.32$ ,  $p<.001$ ), 친구관계의 긍정적 감정( $r=.44$ ,  $p<.001$ ), 부정적 감정( $r=-.25$ ,  $p=.001$ ), 공감능력( $r=.38$ ,  $p<.001$ )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인수용, 친구관계,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의사소통 능력은 인간이 사회적 행동을 해 나감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상호작용으로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28].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사로 하여금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돌봄 행위 수행과 간호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을 도울 수 있다[2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수용, 친구관계 및 공감능력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구관계의 긍정적 감정( $\beta=.32, p<.001$ ), 공감능력( $\beta=.24, p=.001$ ), 보통 정도의 전공 만족도( $\beta=-.17, p=.017$ ), 타인수용( $\beta=.15, p=.040$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32.0%이었다. 즉 긍정적인 친구관계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보통일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됨을 유추할 수 있다.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중요한 과제로서,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 방법 모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비폭력 대화법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감정을 공유하고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의사소통은 간호사와 간호 대상자간의 대인관계과정으로 간호사는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돌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효과적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므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의사소통 능력의 영향 요인인 친구관계에서의 긍정적 감정,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타인수용을 고려하여 의사소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장차 간호사로서 효율적인 간호실무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임상 실무자의 피드백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로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영향요인을 확인한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즉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보통 정도의 전공만족도와 긍정적인 친구관계, 공감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31.7%였다. 전공만족도가 보통이고 친구관계가 긍정적인수록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학과차원의 비교과 교육과정의 활동 및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학부터 졸업 시까지 긍정적인 친구관계 유지를 위한 대학 및 학과차원에서의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몇몇 지역 대학교의 간호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지역과 학년을 확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Y.J. Koh, U.H. Rhee, and J.M. Morton, "Friendship Supports, Conflict - Resolution Styles, and Friendship Networks in Korean and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5, No. 1, pp. 1-18, 2002. DOI: <http://doi.org/10.1037/h0087205>
- [2] S.R. Jeong, "Mediating Effects of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8, No. 1, pp. 221-242, 2020. DOI:<http://doi.org/10.35151/KYCI.2020.28.1.010>
- [3] H.J. Shin, and H.J. Park, "The Effect of nursing

- college student's major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2, pp. 643-664, 2017. DOI: <http://doi.org/10.22251/jlcci.2017.17.22.643>
- [4] S.H. Han, and S.H. Park, "Effecting Factors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and Sociology*, Vol. 9, No. 2, pp. 675-686, 2019.
- [5] H.Y. In, J.S. Lee, and S.J. Kim, "The College Experiences of First-Year Stud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8, No. 8, pp. 141-173, 2021. DOI: <http://doi.org/10.21509/KJYS.2021.08.28.8.141>
- [6] E.A.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Enneagram on Self-Acceptance and Other-Accepta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10.
- [7] D.J. An, "Efficiency Study Measured by Perception Improvement and Concept Formation St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1970.
- [8] B.Y.Chung, "Literature Review of empathetic studie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 17, No. 2, pp. 1-11, 2013.
- [9] D. Mearns, B. Thorne, and J. McLeod, "Person-centred counselling in action", Sage, 2013.
- [10] B. Penprase, B. Oakley, R. Terres, and D. Driscoll, "Empathy as a determining factor for nursing career selec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52, No. 4, pp. 192-197, 2013. DOI: <http://doi.org/10.3928/01484834-20130314-02>
- [11] R. Guan, L. Jin, and M. Qian, "Validation of the empathy quotient-short form among Chinese healthcare professionals",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40, No. 1, pp. 75-84, 2012. DOI: <http://doi.org/10.2224/sbp.2012.40.1.75>
- [12] M.J. Papa, "Communicator competence and employee performance with new technology: A case study",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Vol. 55, No. 1, pp. 87-101, 1989. DOI: <http://doi.org/10.1080/10417948909372779>
- [13] Y.H. Ahn, E.K. Kweon, E.S. Choi, and E.J. Gu, "Effects of Competency Level in Communication on Professional Competence of Public Health Nurse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5, No. 2, pp. 233-243, 2011. DO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29320>
- [14] K.H. Kang, Y.H. Han, and S.J. Kang,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8, No. 1, pp. 13-22, 2012. DOI: <http://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215053141451.pdf>
- [15] J.M. Chamberlain, and D.A.F. Hagga,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Rational Emotive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Vol. 19, No. 3, pp. 163-176, 2001.
- [16] S.Y. Cho, "A Study of the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Stress among the Four Groups of High and Low Acceptance of Self and 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2019.
- [17] M.J. Mendelson, and F.E. Aboud,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Vol. 31, pp. 130-132, 1999. DOI: <https://doi.org/10.1037/h0087080>
- [18] U.H. Rhee, and Y.J. Koh, "The Development of a Friendship Quality Scal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0, No. 2, pp. 226-242, 1999. DOI: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0831570](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0831570)
- [19] M.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 pp. 113, 198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
- [20] B.S.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003.
- [21] R.B. Rubin, M.M. Martin, S.S. Bruning, and D.E. Pow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and test of a self-efficacy model",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1991.
- [22] G.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 6, pp. 380–408, 2003. UCI : G704-000203.2003.47.6.003
- [23]A. Ellis, “Growth through reason: Verbatim cases in rational-emotive therapy”, Science and Behavior Books, 1971.
- [24]J. Yun, “Chang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Friendship and the Stage of Developmen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2, No. 1, pp. 94–113.
- [25]M.O. Chae,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95-103,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5.95>
- [26]Y.H. Jo,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on psychiatric nurses’ image fo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5, No. 4, pp. 294–302.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4.294>
- [27] E.J. Ji,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3, pp. 1685–1697, 2014.
- [28] H.E. Peplau,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psychodynamic Nursing”, New York: Springer Pub, p. 1–60, 2019.
- [29] K.S. Choi, W.S. Lee, Y.S. Park, M.H. Jun, S.Y. Lee, Y.W. Park, S.Y. Park and T.P.W. Vipavee,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the importance of nurses’ qualities perceived by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7, No. 2, pp. 163–172, 2016. DOI:<https://doi.org/10.12799/jkachn.2016.27.2.163>
- [30]Y.H. Hwang, and S.J. Park, “The effects of empathy and self concept on problem solv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4, pp. 348–356, 2020. DOI:<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348>